

두바이유, 110달러에 근접

두바이유가 소폭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는 5월10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0.45달러 오른 109.38달러에 마감됐다고 5월11일 밝혔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배럴당 0.27달러 상승한 97.08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0.47달러 떨어진 112.73달러에 장을 마쳤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11>